

[사회]

■논술 전용 홈페이지 운영·대학별 맞춤형 지도 광주 광덕고

“논술 학원 같 필요 있나요”

선생님들과 토론했며 수업 “창의력·사고력 절로 생겨요”

수능시험이 끝난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 4층 도서관. 대입논술을 지도하는 교사와 30여 명의 3학년 학생들이 ‘넓은 들과과 집,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 사진의 배경은 어디고,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로 봐서 배트남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어느 한 곳을 중심으로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묻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인간과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김형진(32) 교사가 물어본 ‘사진이 가진 의미’의 정답은 없었다. 김 교사는 다양한 의견을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며 생각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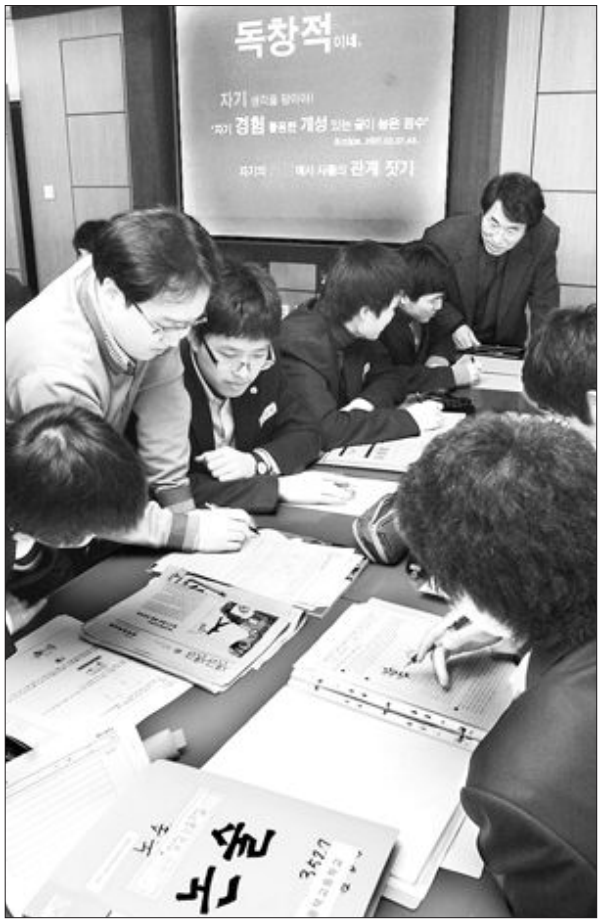
광덕고(교장 김기중)는 수능 후 매일 오전 4시간씩 수험생들을 위한 통합논술반을 운영하고 있다. 7개 과목·14명의 교사들이 학생 5~6명을 지망 대학별로 나눠 가르친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뒤늦게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한 뒤, 이 과정에서 얻어진 논리력·사고력이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수업은 토론·글쓰기·지도교사의 첨삭 순으로 진행된다. 틀에 박힌 글을 쓰게 되면 체점자들이 단기 교육에 의한 글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창의적인 글 쓰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광덕고는 지난 2003년 독서학교로 지정돼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인 논술교육을 시작했다. 각 과목과 교사 14명이 1인당 1과목·1 대학을 맡도록 해 꾸준히 연수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사들은 독서활동·신문활용·시사토론·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논술기법을 개발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로 구성된 ‘통합논술연구회’는 전용 홈페이지 ‘심상논술’(www.thinknonsul.com)도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주제별 논술·통합논술·첨삭지도·자료실·커뮤니티로 구성돼 학생들이 올린 글을 사이버상에서 지도해주고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장이 되고 있다. 광덕고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회 학교논술교육 발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성욱(18·3학년)군은 “1학년부터 학교에서 꾸준히 토론하고 글을 써보니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이 자연스럽게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진 교사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학교와는 달리, 수능이 끝난 후 비싼 돈을 들여 논술을 배우러 가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21일 오전 광주 광덕고 4층 도서관에서 대입 논술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글쓰기에 앞서 주제 토론을 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nwi@kwangju.co.kr

니터로 구성돼 학생들이 올린 글을 사이버상에서 지도해주고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장이 되고 있다. 광덕고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회 학교논술교육 발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성욱(18·3학년)군은 “1학년부터 학교에서 꾸준히 토론하고 글을 써보니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이 자연스럽게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진 교사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학교와는 달리, 수능이 끝난 후 비싼 돈을 들여 논술을 배우러 가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일부고교 교과과정 편법 운영 광주시교육청 진상 조사 착수

광주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광주시교육청이 진상 조사를 나섰다.

자신을 광주 M고 3학년이라고 밝힌 아이디 ‘학생’은 21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편법 운영 실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학년 때 생물 1과 물리 1에 할당된 시간 일부가 한국 근현대사와 전통윤리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3학년 때는 독서·작문·실용수학·확률과 통계·영어 2·영어독해·세계사·세계지리·전통윤리·일본어 2·체육과 건강 등이 교과과정에 있었으나 실제 수업한 것은 영어 2 뿐이었다”며 “독서·작문 등 시간에는 수능 대비 문제집 풀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일에는 같은 게시판에 네티즌 ‘이명박’이 “K고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인문계에서는 생물을 문학으로, 자연계에서는 일본어를 수학 1로, 법과사회는 문학으로 바꿔 수업했고, 중간·기말고사도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간·기말고사에서는 이들 바뀐 과목의 답안지를 원래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그대로 옮겨적도록 해 조직적인 내신성적 조작이 자행됐다”며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한 과목에 대한 학습권을 침해받고, 수험이나 문과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생물·일본어·법과사회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돼 이중으로 손해를 봤다”고 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과정 편법 운영은 수능에서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을 주요 과목으로 바꾸거나, 학교가 수능에서 선택한 과목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험에서까지 다른 과목으로 대체했다면 내신성적 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서석재 대강당에서 21일 열린 제13대 전호중 총장 취임식. 이날 취임식에는 김용재 이사장·양형일 국회의원·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강정채 전남대 총장 등 내외귀빈과 학생·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호중 조선대 총장 취임

조선대학교 제13대 전호중 총장이 21일 취임했다. 교내 서석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전 총장은 “지난 20년간 학교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학교법인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비약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조선대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이사장은 축사에서 “전 총장이 우리 대학의 승고한 설립정신에 입각,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투명한 고 함리적인 사고로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치하했다.

취임식 후에는 서석재 4층 로비에 서 내외귀빈이 참석한 리셉션이 열렸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November 22nd, including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기상청 간부가 부적합 장비 납품 압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서류를 꾸며 기준에 부적합한 기상관측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 항공기상대장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근까지 기상청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공항 등에 대한 저층난류 기상관측장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4년 12월 초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K사의 ‘윈드 프로파일러’ 2대(1억9500만 원 상당)를 납품하게 한 혐의다.

최씨 등 기상청 검사·검수 공무원 7명은 지난해 12월 전국 5개 기상대에서 일기예보용으로 사용할 GPS 라디오존데(고층 기상관측장비) 설치 사업에서 검사 및 검수조서를 꾸며 K사가 비교관측시험에서 사용한 모델과 다른 모델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상청 예보국장을 지냈던 채모씨는 K사에 취직한 뒤 ID와 패스워드를 빌려 기상청 내부 전산망에 침입,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기상청 각 부서에서 발송한 문건 6천100여 건을 몰래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K사는 이 문건에서 빼낸 정보를 이용해 2005~2006년 기상청 외주사업 30건 중 25건(계약가액으로 97%)을 계약, 사실상 외주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천 터미널 기아로 일부 내년 1월초까지 부분통제 교통체계 개선공사 나서

광천동 버스터미널 북측 기아로 일부 구간이 부분통제된다. 광주시는 21일 “이 일대 210m구간의 상습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착수했다”며 “내년 1월 초까지 부분적으로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2억9천만 원을 들여 교통혼잡과 시내버스 유계승강장을 설치, 시내버스의 승·하차 동선을 분리한다. 개선공사가 끝나면 이 일대 평균 차량 통행속도가 40%가량 빨라지고, 교통혼잡 비용도 연간 2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옛 기무부대터 건축 제한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할 때까지

광주시 서구 상촌동 옛 기무부대 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21일 “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까지 옛 기무부대 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5·18 사적지 보존위원회’를 열어 기무부대 터 3만 8천459㎡를 5·18 사적지로 지정한다

이러 역사공원 지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된 뒤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부지를 5·18

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교육·체험 및 순례지로 조성해 민주정신을 기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공시지가 기준 17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 받게 해달라고 그동안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해왔다.

기무부대 터는 5·18 당시 광주학생을 지휘했던 신군부 본부가 있었던 곳이며 민주인사와 시민군의 구급고문수사가 이뤄진 곳으로 ‘5·18 사적지 26호’로 지정돼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yuten (큐텐) medicine, featuring a woman holding a child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mothers and children.